



언제부터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을까?

고기요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기로 만든 우리들이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름하여 패스트푸드)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있다면 햄버거일 것이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웬디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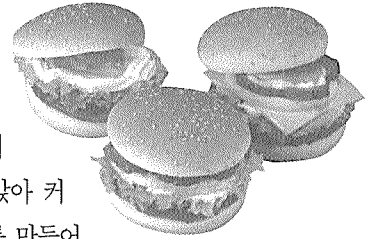
햄버거,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알고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햄버거는 역시 미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집밖에서 쇠고기를 구워 먹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햄버거의 시초가 1892년 오하이오의 군축제 때 어떤 식당 주인이 돼지고기 소시지가 떨어지자 대신 다진 쇠고기를 쓴 것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햄버거가 처음 출현한 것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축제때였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쇠고기가 아닌 햄버거라는 역설적인 그 이름의 기원에서 “햄버거”는 함부르크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진 쇠고기와 양파가 제공된데서, 혹은 함부르크에서 인기 있는 다진 쇠고기 요리에서 유래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햄버거가 대량생산되는 식당요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캔자스시에 화이트 캐슬 햄버거 연쇄점이 설립되면서 비치기 시작했다. 이 연쇄점은 서서히 확산되어 뉴욕에 설치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 화이트 캐슬은 즉석요리점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즉석요리 식당의 시대 역시 무르익기 전이었다.

화이트 캐슬은 시중심에 있는 그 지역의 보행자들을 위한 값싼 식당이었고 고객들이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밀려드는 새 주문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초의 Fast Food점은 자동차 시대의 부산물이었다. 많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부엌의 식탁에서보다 우리창과 바퀴가 달린 거실에서 먹기를 좋아했다.

레이크룩이 1955년에 선구적으로 개시한 맥도날드 햄버거는 1966년까지 앉아서 먹는 고객들을 위한 의자와 식탁을 놓지 않았다.

그후로 자동차에 햄버거를 내주는 창, 넓은 주차장, 주문하는 곳과 먹는 장소의 분리, 제한된 메뉴, 표준화된 음식, 그리고 깨끗한 “가족적 분위기”가 성공을 위한 공식이 되었다.

1980년대초 미국인들은 일인당 50파운드의 다진 쇠고기를 먹었는데, 이는 대부분 햄버거를 통해 먹은 것이다.

매초당 즉석 식당에서만도 200명, 일년에 무려 670억 명이 하나나 두 조각의 고기를 끼운 빵을 먹고 있으며 이는 돈으로 치면 100억달러에 달한다. 맥도날드 햄버거만도 하루에 1,400만의 미국인들이 먹고 있다.

(참고문헌 :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마빈헤리스, 한길사)